

연하장 (年賀狀)

오늘날의 인류의 몇 안되는 공통점의 하나로 등장한 세밀 카드 보내기 문화의 역사는 불과 150여 년 밖에 되지 않는다. 1843년 당시 런던 빅토리아 박물관장에 취임한 헨리 콜 경이 저명 화가 존 호슬리에게 카드 제작을 의뢰해 받은 그림 엽서를 자신의 친지들에게 문안 목적으로 보낸 것이 카드 역사의 시초로 전해지고 있다. 그후 독일에서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드 보내는 유행이 폭발적으로 일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카드 문화를 정립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초에 세배를

다니던 세함 풍습에서 유래되었다. 즉 세배를 다니다가 어른이 안계시면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세함(歲銜: 인사장을 넣게끔 칠을 한 상자)에 넣어 다녀갔음을 알렸는데, 바로 이 세함에 집어넣던 종이 가 연하장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카드 문화는 구한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1900년 초 서양 선교사들이 주고 받은 것이 서구식 크리스마스 카드의 시초였다. 그뒤 해방과 더불어 진주한 주둔군들의 카드 보내기 문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방하면서 급속히 퍼져 나갔다. ▲▲

안동소주 · 문배주

소주는 우리나라 북쪽지방에서 즐겨 마신 술이다. 추운 지방에서는 독한 술이어야 추위를 견디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남쪽에서는 막걸

리가 서민층의 애호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후와 양조재료에서 오는 차이이다. 우리나라에 소주가 전래된 것은 몽고군이 내습했을 때라 한다.

고려를 손아귀에 넣은 몽고군은 다시 일본 정벌에 나서고 있는데, 그 전진 병참기지가 안동이었기에 안동이 소주 생산지로 이름을 얻게 됐다 한다. 안동 소주를 제비원 소주라고도 하는데, 이는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지명에 관한 전설과 관련이 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제비원 마애석불(보물 115호)은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으며 높이 12m의 암벽에 몸체를 조각하고 머리 부분을 따로 조각하여 만든 거대한 불상이다. 이 불상을 조각할 때 그 당시 명성이 자자하던 석공에게 조각을 부탁하였는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제자가 스승보다 더욱 솜씨가 뛰어났다. 질투에 못이긴 석공은 그의 제자가 절벽에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할 때 사다리를 치워 버렸다. 그러자 그 제자 석공은 제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다. 그 연유로 제비원 마애석불이라 부른다. 그후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안동 도호부에 왔을 때 이 부처의 목을 치니 석불이 붉은 피를 흘리는지라, 소정방은 겁을 먹고 업드려 사죄하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가슴 부근의 붉은 색은 그때 흘린 핏자국이라 한다. 또한 이런 내력 때문에 옛날부터 안동 소주를 제비원 소주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안동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안동소주는 육회를 안주삼아 밥뚜껑으로 마셔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문배주는 중요 무형문화재 86호로 지정된 전통의 명주다. 문배주란 명칭은 초기에 문배술을 빚었을 때 당시 평양에 많이 자라던 문배(梨)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붙였을 뿐, 원료로 문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좁쌀 누룩 수수밥을 원료로 만든 이 술은 옅은 황갈색으로 증류할 경우 최고 48도까지 올라가는데, 최소한 40도가 넘어야 제맛이 난다고 한다. ▲▲